

백충현 조교수의 논찬에 대한 응답

카타야나기 에이이치 (片柳榮一)

낙운해 (洛雲海) 역

졸론에 대해 정중하고 진지한 논찬을 해 주신 백조교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논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층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백조교수께서 간결하게 정리해 주신 5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서 보여지는 “인간적 자유”를 신의 존재와 연결시키는 점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입니다만, 저는 인간의 자유와 신의 존재를 직접 연결시키려 하지는 않았고, 더욱이 자유가 신의 존재의 증거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반의 물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진정한 문제는 모든 행위가 허용될 때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표현이 애매했지만, 모든 것이 허용될 때라는 것은 문맥상 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의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만,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신은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반에게는 법의 조정자, 그리고 그에 따라 보상과 벌을 주는 자로서의 신이었습니다. 칸트나 본회퍼는 그러한 기계적인 신을 부정하고, 신에 대한 물음을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백조교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인간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의 적절한 예로 Sh. Kagan 교수를 들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죽음은 소멸이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인간은 단 한 번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며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삼 프랑클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만, 그것에 의하면 케이건 교수가 앞에 두고 있는 사태, 죽음이 개인의 소

멸이며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며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물음” 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케이전씨는 한 가지 답을 낸 것입니다. 바로 그가 답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삶” 이 보인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삶” 이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 안에 숨어 있는 결정적인 주제이자 기본적인 테마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카프카도 프랑클도 본회퍼도 같은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어가 달라서, 케이전씨는 신이 없는 세계라고 말하고, 본회퍼는 이 신이 없는 세계에서 신 앞에 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종교 간의 진정한 대화가 생성되는 것은 이 “단 한 번의 삶” 이 생생하게 열리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신’ 이라는 말, ‘인간’, 그리고 종교라는 말로 각각이 의미하는 것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여기서 문제가 된 자유는 개인적, 실존적 차원의 자유이며, 자유의 총체적인 실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다른 접근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만, 확실히 여기서 문제가 된 자유는 그 총체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의 변혁에 관한 자유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저도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에 종교적인 자유 관념이 있다고 하는 A. D. Lindsay의 생각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문제 삼은 자유가 총체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체 중의 부분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 삼은 자유는 인간 존재의 “기초” 에 있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징표” 라는 것은 말해 두고 싶습니다.

3. 프랑클의 곁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지 못하고 죽어간 많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프랑클의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사상과는 상관없이,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에 두고, 저는 이 프랑클을 한계 상황을 견뎌낸 영웅이라고 생각하여 여기서 문제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말해 두고 싶습니다. 그 자신이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의 생각을 “한계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를 가르치는 영웅적 존재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금 핵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는 이 생각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저는 당시의 프랑클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 당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

을 각오한 듯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물음에 답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수용소에서 무너지듯이 쓰러져 간 사람과 같은 자리에 프랑클도 서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깊이 수궁하고, 그 부조리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은 침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인간적 자유의 총체적 실재를 문제로 삼을 때, 카프카는 적당하지 않은 예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만, 저는 여기서 카프카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인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두 번 약혼을 파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신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울 정도의 예민함으로 삶을 응시하였고 거기에서는 깊은 종교적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을 통해 우리의 종교적 삶에 대한 감수성을 닦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 질문은 저에게 신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가장 크고 곤란한 질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발표원고에서 기술한 것을 반복하여, 불명료하게나마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장소를, 다만 자신이 홀로 질문 받고 있는 궁극적 장소로서 받아들이라 하시고, 촉구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랄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클이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장소에 서는 자를 깊은 긍정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다.”